

인성 25주년의 회고와 미래상

설립자 이 기 혁 목사

우리 인성 학원의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나는 설립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인성을 바라보고 과거를 회고하며 미래를 상상하여 몇마디의 꿈을 내 나름대로 말해 보려 한다.

금년을 인성이 생긴지 25주년이라 하지마는 실상은 80년 전에 시작된 셈이라고 나는 자처하고 싶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내 나이 80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31년전에 내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인천 제일교회 목사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인천에서 생겼고 시국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학교가 이북에서 설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8·15해방이 되면서 나는 곧 기독교 학교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세워보려고 이북에서 교지를 준비하고 확장일로로 추진하다가 공산당에게 쫓기어 벼락같이 이남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내가 인천으로 와서 제일교회를 담임하면서 어릴때부터 꿈꾸던 이상이 불타듯 일어나서 2개월 후부터 조 남철 집사님(장노)과 선우 황 집사님(권사)과 손을 잡고 협력하여 불탄 자리위에 무궁화유치원을 설

립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성경구락부를 시작하여 학생수가 많아지므로 무궁화국민학교라고 국가에 인가를 받아 구락부겸 종교교육에 중심한 무산 아동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우리교회 청년에서 주동하여 열심하니 일취월장하여 수천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이때에 방 청산 선생(집사)의 공이 컸다. 그러나 6·25동란이 일어나서 정든 탑이 무너지듯 모두 해산되고 말았다. 시국이 다시 회복될 때에는 한 태준집사(장노)님이 선발대로 먼저 들어와서 이 학교를 다시 개교하고 학생을 모았다.

교회의 부흥과 학교의 발전을 따라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하여 문교부 인가를 얻을 단계에 이르렀다.

이때에 학원 이름을 인성으로 고치면서 재단은 학교법인 제일학원 재단(제일교회를 연상함)이라고 등록했다.

먼저 인성여자중학교 다음에 인성여자고등학교 다음에 인성국민학교로 문교부에 인가를 얻어 완전한 학교 교육을 실현했다. 재단을 완성시킴에는 교회와 학교 직원들이 일심 협력하여 오늘까지 25년간을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제일교회

가 잇을 수 없는 특별공로자를 몇 분 적어본다면 선우 황 권사, 김 문영장로, 이 희영 장로, 이 상규 선생, 이 동욱 교장(장로), 백 운기 교장, 김 용점 교장(장로), 정 용욱 장로, 오 원선 목사, 박 원호 교장(장로), 김 덕용 교장(안수집사)님들이 되며 일일이 다 들 수는 없다. 앞으로 대학교가 될 때까지 유공한 인물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곧 복음화 운동이요, 국가와 세계에 대하여 참 인물을 키우는 일이라고 나는 믿어 왔다. 기독교 신앙을 중심한 교육이 참 교육이라는 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절실히 느끼면서 목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온다. 남자 학교가 더 필요하냐? 여자 학교가 더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판결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여학교를 시작했다. 현실에서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또 잘하고 씩씩하긴 하나 20년 30년 후, 미래가 누구보다 더 커지고 더 위대하고 수준높은 민족을 이룩하려면 그들을 낳고 기를 근본적 원인이 될 어머니들을 신앙터 위에서 깨끗하고 단정하고 고상한 인물로 잘 기르는 데 있다고 생각되어 여성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효과는 점점 번져나아가고 있다.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평이 매우 높아졌고 우리 학교에 입학되는 것을 부모나 학생 자신들이 매우 기뻐하며 영광으로 알게 되었

다. 우리학원을 거쳐 나간 학생이 벌써 수천 수만이 되어지고 보니 그들을 통해서 소리없이 기별없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되며 복음화의 분위기가 얼마나 짙어지는 가를 느낄 수가 있다. 수십년 후부터는 분명히 세계적, 국가적, 교제적으로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날 것이요 세계를 이끄는 인물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런 희망을 품고 때때로 기도하기도 한다. 신앙의 힘은 참 위대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오늘까지 역사를 옮기는 힘이 기독교 신앙에서만 발견되었다. 폭탄도 핵무기도 이 신앙의 힘을 이겨보려고 발명된 것이 아니다. 이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생겨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소유한 국민이 폭탄과 핵을 가져야만 참 승리가 올 것이요, 이 신앙의 힘을 기르지 못한 민족이 이 핵의 힘을 가진 곳에는 영원한 파멸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염원은 이 민족이 불원한 장래에 가장 위대한 민족, 가장 복된 나라를 이룩하려면 이후에 핵무기보다 더 큰 힘이 인간의 지식으로 발명한다 해도 그것을 옳게 사용할 위대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신앙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인성학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최강의 힘을 기르는데 있다. 이렇게 우리 학교가 자라나고 있으면 우리의 장래는 더욱 보람이 있을 것이다.